

POLITICS

2025년 4월 11일 금요일

민주 대선 경선 ‘국민선거인단’ 방식 유력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권한쟁의심판 청구’ 방침

우원식 국회의장은 10일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대통령 무 헌법 재판관 후보자 2명을 지명한 데 대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의정실 관계자는 이날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이 오는 대로 효력정지 가처분을 신청하고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 권한대행은 이르면 이날 오후 국회에 헌법재판관 인사청문 요청서를 보낼 것으로 알려졌다. 우 의장은 요청서를 접수하지 않고 청문 절차 자체를 거부한 다는 방침이다.

앞서 한 권한대행은 18일 임기가 만료 되는 대통령 추천 몫의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두 사람은 대통령 몫이어서 임명에 국회의 동의가 필수 적어진 않다.

인사청문회법상 대통령이 임명 동의안을 국회에 내면 국회는 20일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쳐야 하며, 청문 기간은 10일 까지 연장할 수 있다.

만약 이 기간이 지나도 국회가 인사청문 보고서를 채택·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은 지명자를 임명할 수 있다. 앞서 이미 선 재판관도 인사청문 보고서 채택 없이 문재인 전 대통령이 임명했다. 연합뉴스

1만명 모여 광주미래 전략 모색 ‘포럼 만민공동회’ 13일 DJ센터

광주시민 1만여 명이 모여 광주 미래발전 전략을 세우고 대선에서 광주의 역할을 모색하는 대토론회가 열린다.

더불어민주당 정진욱 의원(광주 동남갑)은 “오는 13일 오후 3시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 4층 컨벤션홀에서 ‘포럼 만민공동회’를 열고 ‘광주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울 방안’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회와 시민 자유발언을 이어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만민공동회’에는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을 비롯해 정구재 전 한국경제주필, 양부남 민주당 광주시당위원장을 비롯해 민형배·안도걸·조인철·정진욱·박균택·전진숙·정준호 의원 등 광주 지역구 국회의원 전원이 토론자로 참석한 다.

강기정 광주시장과 문인 복구청장 등 구청장들도 다수 참석해 시민들과 함께 발언할 것으로 보인다.

토론회에서는 △12·3 계엄을 이긴 ‘광주 정신의 헌법전문 수록’ 당위성을 확인하고 △인공지능(AI)·바이오(BIO)·문화(CULTURE)·자동차(Drive in future·MOBILE)·에너지(ENERGY) 등 이른바 ‘광주ABCDE’로 대표되는 광주의 미래산업과 성장전략을 모색한다.

또 △광주가 이번 대선에서 핵심역할을 함으로써 ‘대한민국을 바꾸는 주역’이 되도록 하겠다는 각각의 주제로 토론을 벌이고, 결의문 채택으로 행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만민공동회 토론회를 제언한 정진욱 의원은 “지난 1898년 만민공동회가 자주독립과 국민주권, 정치개혁을 외쳤고 그 당시 서울시민 17만 명 중 1만~3만 명이 모이는 엄청난 반향을 불러일으켰다”며 “‘포럼 만민공동회’가 윤석열 내란을 이겨낸 광주 정신을 바탕으로 광주와 대한민국을 바로 세우고, 새로운 발전의 전기를 마련하는데 주도적인 역할을 함으로써 제4기 민주정부를 활짝 열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선택! 6·3 대선

윤석열 대통령 파면으로 인한 조기 대통령선거일이 6월 3일로 확정되면서 여야 정당이 본선 후보 선출을 위한 경선 일정과 룰을 마련하는 데 박차를 가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이 10일 대선 경선규칙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대선특별당규준비위원회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비공개회의를 열고 경선 규칙 개정안을 확정 짓는다.

이춘석 특별당규준비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브리핑을 통해 확정된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앞서 이 위원장은 전날 첫 특별당규준비 회의 이후 “내일(10일)까지 결정을 다 해야 금요일 최고위원회, 당무위원회

권리당원과 선거인단 1인1표 주는 방식 가닥

국힘, 1차 경선서 4인…2차 경선서 2인 압축

를 거치고 토요일·일요일 전당원 투표를 해서 확정할 수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민주당은 20대 대선 당시에도 도입했던 ‘국민선거인단’ 방식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당비를 일정 기간 납부한 권리당원과 일반 국민을 대상으로 새로 모집하는 선거인단에게 ‘1인 1표’를 주는 방식이다.

예비경선이 없을 경우 본경선은 16일~27일 전국 4개 권역을 순회하는 방식으로 할 전망이다.

2017년 19대 대선 경선처럼 호남, 충청, 영남, 수도권·강원·제주로 나눠 권역

별 경선을 실시하는 방식이 현재는 유력하다.

비명(비이재명) 계와 조국혁신당은 국민 여론조사 100%를 반영하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이 위원장은 “이번 경선에서 당원 주권 강화 방안을 어떻게 도입할 건지가 특별당규준비위의 가장 중요한 과제”라며 오픈프라이머리에는 선을 그었다.

국민의힘은 이날 두 차례 예비경선(컷오프)을 통해 대선후보를 각각 4명과 2명

순으로 압축하되, 4인 경선에서 과반 득표자가 나오면 2인 경선 없이 후보를 확

정하기로 했다.

국민의힘은 오는 14~15일 후보 등록 신청을 받은 다음 서류심사를 통해 16일 1차 경선 진출자를 발표한다.

1차 경선은 ‘일반국민 여론조사 100%’ 방식, 2차 경선은 ‘선거인단(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방식으로 진행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당헌·당규에 따라 ‘당원 투표 50%·일반국민 여론조사 50%’ 비율로 1·2위 득표자 간 최종 경선이 진행된다.

1차 경선은 추첨을 통해 후보를 3개 조로 나눈 뒤 이달 18·19·20일 조별로 토론회를 한다. 21~22일 국민 여론조사가 실시되며, 22일 오후 4명의 2차 경선 진출자가 발표된다.

2차 경선에서는 후보 1명이 다른 후보

1명을 지명하는 1대1 주도권 토론이 총 4번 열린다. 다른 후보로부터 지명받지 못한 후보는 자신의 주도권 토론 1회를 할 수 있다.

26일에는 4명의 후보가 참여하는 토론회가 진행된다.

국민의힘은 27~28일 당원 투표와 국민 여론조사를 하고, 29일 2차 경선 결과를 발표한다.

2차 경선에서 과반을 득표한 후보는 바로 최종 후보로 결정된다.

2차 경선에서 과반득표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 열리는 최종 경선은 30일 양자 토론회, 5월 1~2일 당원투표와 국민 여론조사가 이뤄진다.

최종 후보자 선출을 위한 전당대회는 5월 3일 열린다.

이성오 기자 solee235@gwangnam.co.kr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진보당 강성희 전 의원이 10일 오전 광주 북구 국립5·18민주묘지에서 참배를 마치고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진보당 대선 예비후보들

“5·18 정신 받들어 내란세력 완전한 청산”

조기 대선 출마를 선언한 진보당 김재

연 상임대표와 강성희 전 의원이 10일 광

주를 찾아 내란 세력 청산을 다짐했다. 김 상임대표는 이날 광주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한 뒤 “죽은 자가 산 자를 도와 새로운 빛의 항쟁의 역사를 썼다”며 “이제 내란 세력의 완전한 청산과 새로운 대한민국, 평등 공화국으로 향하는 걸음을 내딛겠다”고 밝혔다.

이어 “광장의 시민들께서 바라셨던 응원봉 민주주의는 곧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염원이라고 생각한다”며 “진보 정치가 그 염원을 실현하는 몫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강 전 의원은 “윤상원 정신, 5·18 정신은 국민의힘 해산으로 완성돼야 한다”며 “국민의힘 해산의 길에 앞장서겠다”고 말

했다.

그는 “윤석열을 끌어내렸지만 서민의 삶은 변하지 않았다. 새로운 대한민국으로 가려면 개헌해야 한다”며 “대통령 후보들은 항상 개헌을 약속했지만 지킨 사람이 없는데 이번 대선 기간 서민, 노동자, 청년을 위한 개헌의 단초를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김 상임대표와 강 전 의원은 지난 9일 진보당 경선 후보로 등록한 뒤 이날부터 본격적인 권역별 유세에 나섰다.

두 후보는 이날 오후 광주 광산구청소년수련관에서 호남권 유세를 하고 부산·대전·서울에서도 유세를 이어간다.

진보당은 오는 15~19일 당원 총투표를 통해 본선 후보를 확정할 예정이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공공기관 행사장 무대 휠체어 경사로 설치 미비”

서용규 시의원 “장애인 평등한 접근권 보장돼야”

광주시와 기초지자체에서 운영하고 있는 행사장 무대의 휠체어 경사로 설치가 미흡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0일 광주시의회 서용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사진)이 최근 요청한 조사 결과에 의하면 광주시 및 기초지자체 공공기관 행사장 80개소 중 무대 휠체어 경사로 설치 45개소, 미설치 29개소, 불발요 6개소로 파악됐다.

총 80개소 중 무대 휠체어 경사로 설치는 45개소(56.25%)로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인들이 공공행사에 참여하는데 있어서 물리적 장벽 감소 요인으로 행사에 대한 접근성이 보장되고 있다.

반면에 29개소(36.25%)의 행사장에는 무대 휠체어 경사로가 설치되지 않아 장애인들이 공공기관 행사에 대한 평등한 접근권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이다.

또 설치가 불필요한 6개소(7.5%)는 해당 행사장의 구조나 용도에 따라 휠체어 접근이 필요하지 않거나 별도의 대체 시설이 갖춰져 장애인들이 접근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향후 설치 예정인 장소는 4개소로, 장애인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어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황에 비해 설치 계획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서용규 의원은 “현황을 보면 광주시의 공공기관 행사장들이 휠체어 접근성을 일부 고려하고 있으나, 여전히 미설치된 행사장이 많은 상황임을 알 수 있다”며 “장애인들의 행사 참여를 완전히 보장하기 위해서는 무대 휠체어 경사로 설치가 더욱 확대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모든 공공기관 행사장에는 무대 휠체어 경사로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한 예산을 배정해야 한다”며 “이는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장하는 중요한 조치로, 각 기관은 경사로 설치 계획을 수립해 실행에 옮겨야 한다”고 밝혔다.

장승기 기자 sky@gwangnam.co.kr



10일 담양리조트에서 열린 조국혁신당 현장 최고위원회에서 정철원 담양군수가 김선민 당대표 권한대행에게 정책제안서를 전달하고 있다. 사진제공=조국혁신당

조국혁신당 “호남 위한 정치로 보답하겠다”

김선민 “한덕수, 대선 나가려면 사퇴부터…탄핵 추진”

민주당 텃밭인 호남에서 첫 기초단체장을 배출한 조국혁신당이 10일 광주를 찾아 “호남을 위한 정치가 무엇인지 보여주겠다”고 밝혔다.

혁신당 김선민 대표 권한대행과 당 지도부는 이날 오전 광주 국립5·18민주묘지를 찾아 참배했다.

참배를 마친 김 권한대행은 기자들과 만나 “이제 첫 지역구가 생겼다”며 “담양 군민들의 선택은 호남에서 정치 혁신을 이룩하려는 준엄한 명령인 만큼 호남을 위한 정치로 보답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또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 “혁신당이 지역 풀뿌리 정치에서 건전한 경쟁

이 무엇이고 새로운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 보여드릴 기회가 될 것”이라며 “지역 민심이 광장히 좋은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다”고 말했다.

혁신당 지도부는 5·18민주묘지 참배를 마친 후 담양으로 이동해 담양리조트에서 당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개최했다.

김 권한대행은 이 자리에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를 향해 “한덕수 씨가 대선에 대한 마각을 드러내는 것 같다”며 “대선에 도전하려면 지금 당장 사퇴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덕수씨는 윤석열의 내란을 방임하고 적극 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최고위에서는 한 대행에 대한 탄핵소추를 추진하겠다는 의견도 나왔다.

황완하 원내대표는 “권한대행 주재 대행의 본분을 망각하고 마치 대통령 자리에 앉기라도 한 듯 헌재 재판관 두 명을 지명했다”며 “자신이 지명할 수 있는 몫이 아남을 알면서다 윤석열 정부의 범죄 처장자 내란의 공범으로 수사받고 있는 이완규를 지명했다”고 직격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지명은 6월 3일이면 탄생할 새 대통령 몫이다”며 “윤석열이 강도질을 했다면, 한덕수는 도둑질을 한 셈이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국회는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즉각 한덕수를 탄핵해야 한다”면서 “조국혁신당은 한덕수 탄핵안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K-관광 열풍’ 관광객 유치…전남과 일본 잇는다

도·관광재단-HIS 네트워크 관광상품 개발 간담회 개최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최근 관광재단에서 일본 최대 여행사인 HIS 본사 관계자, 협력여행사인 굿필투어와 함께 일본 관광객 대상 전남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2일 밝혔다.

간담회에는 유현호 전남도 관광체육국장과 심우정 관광과장, 김영선 전남관광재단 대표이사, HIS 해외여행부장, 아시아지역리더, 한국담당자 등 일본 본사 관계자들과 굿필투어 박동철·조소연 공동대표가 참석, 일본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한 전략을 논의했다.

이번 간담회는 일본 관광객 특성과



전남도와 전남관광재단은 최근 관광재단에서 일본 최대 여행사인 HIS 본사 관계자, 협력여행사인 굿필투어와 함께 일본 관광객 대상 전남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선호도를 고려한 맞춤형 전남 관광상품의 기획 방향을 공유하고, 전남의 미식, 웰니스, 역사, 자연 자원을 융합한 체류형·체험형 관광 콘텐츠 개발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일본 관광객의 트렌드에 부합하는 여행상품 기획을 중심으로 공동 마케팅 전략, 향후 팬투어 운영 계획 등에 대한 실질적인 의견 교환도 이뤄졌다.

HIS 측은 간담회에서 전남도의 대표 볼 추천인 광양 매화축제, 진도 신비의 바닷길 축제, 영암 왕인문화축제 등 이른바 ‘전남 볼 3대 축제’를 테마로 한 여행 상품이 일본 현지에서 큰 호응을 얻었다고 전하며, 올해 더욱 많은 일본인 관광객을 전남으로 유치 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박정렬 기자 hoibul@gwangnam.co.kr